

음악의 경계, 경계의 음악

라이브 스트리밍 작업을 중심으로

김지연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 2011년부터 작업. 바깥소리를 녹음, 믹스해서 음악작업을 하거나, 그 과정을 재구성하여 관객이나 청취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방식.
- 사운드 아트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소리, 비음악에 대한 논의에 관심.
- '듣기', '바깥', '사람이 없는 풍경'에 대한 주제적 관심.
- 기술모임, 동료, 구체적 작업, 레지던스 등의 기회를 통해 소리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해 나갔음.
- 2014-15년에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를 접했음. '녹음'이라는 과정에서 경직되어있던 부분들을 다시 보게되면서 스트리밍 매체를 적극 탐험하게 되었다. 음악의 형태에 대해 좀 더 열린 태도를 지향하게 되었음.

라이브 스트리밍 작업

- 방식
 - : 기술 매체로 '음악을 구성하는 것들'과 '듣기 방식'에 접근한다.
- 주제
 - : 시간성(시차, 동시성, 다른 시간), 장소성(이곳과 저곳. 바깥. 연결)
- 사례 소개
 1. 웨더리포트
 2. 투명한음악
 3. 피아노데이

웨더리포트 WeatherReport (2015 -)

- 영국 콜렉티브 'soundcamp(사운드캠프)'와의 교류
- 제주에 이주한 후에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스트리밍 라디오 작업으로 시작. 2016년부터는 이강일 작가와 협업하여 콜렉티브로 활동.
- 스트리밍 라디오, 퍼포먼스, 캠핑, 설치 등의 방식으로 작업 발표.
- 라이브 스트리머 제작. 야외장소에 설치.



활동

- 2015-2016년: 제주에 거주하게 되면서 웨더리포트 제주(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2015년 스트리밍+녹음 파일로 구성, 2016년 실시간 환경소리+키보드즉흥.
형태: 메일링, 소책자 및 미니앨범 발간, 리스닝이벤트 기획
- 2016년: 아르코 한-영 리서치 진행
- 2017, 2018년: 제주 곶자왈, 북한산 국립공원 등지에서 리스닝캠프
- 2018년: 제주 문화공간 양에서 레지던스. 이후에 공간의 요청으로 상시 스크리머 설치+라이브 스트리밍 맵 프로젝트에 참여
- 2019년: 제주-런던 엠비언트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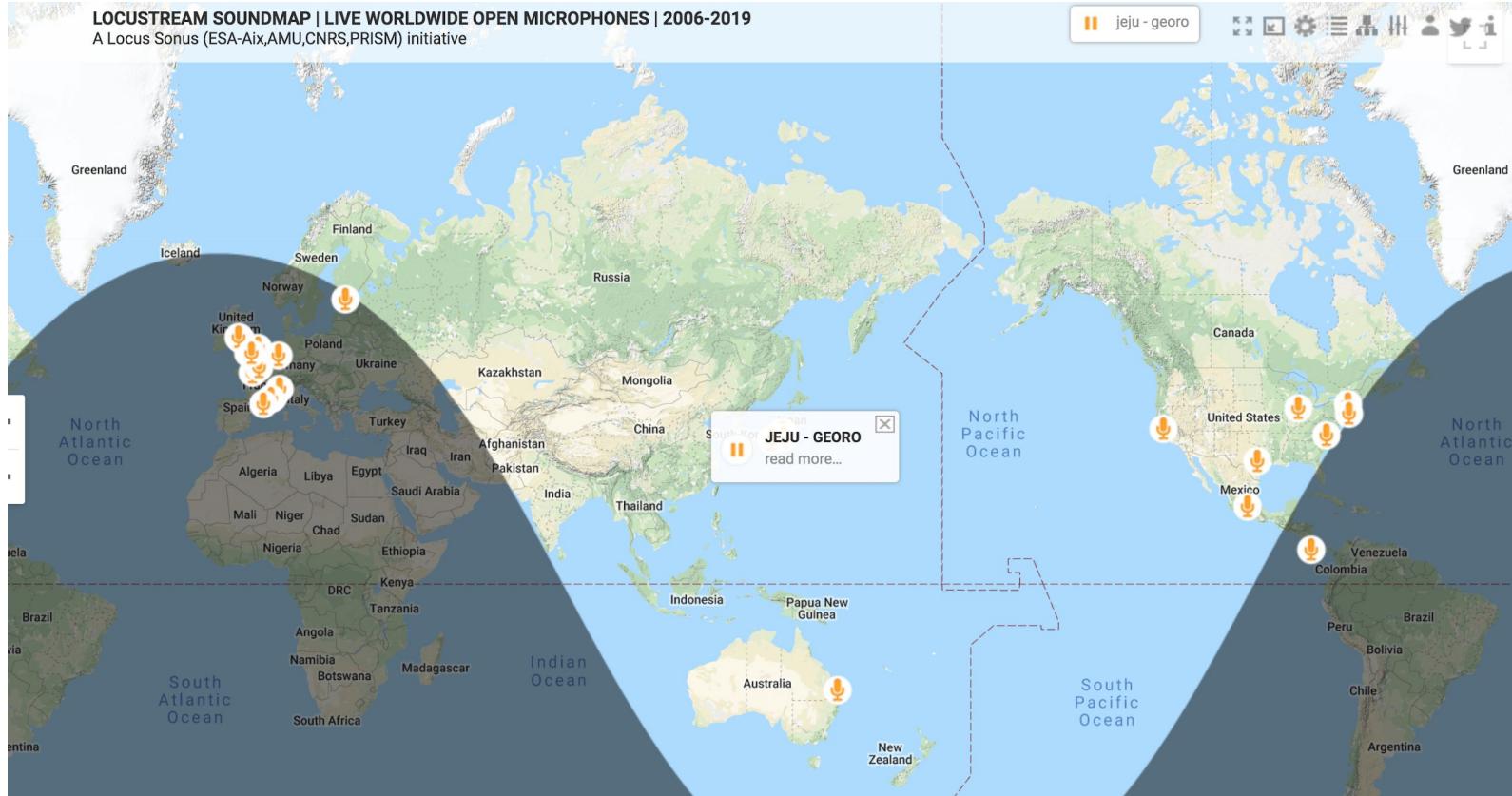








Locus Sonus Soundmap



제주-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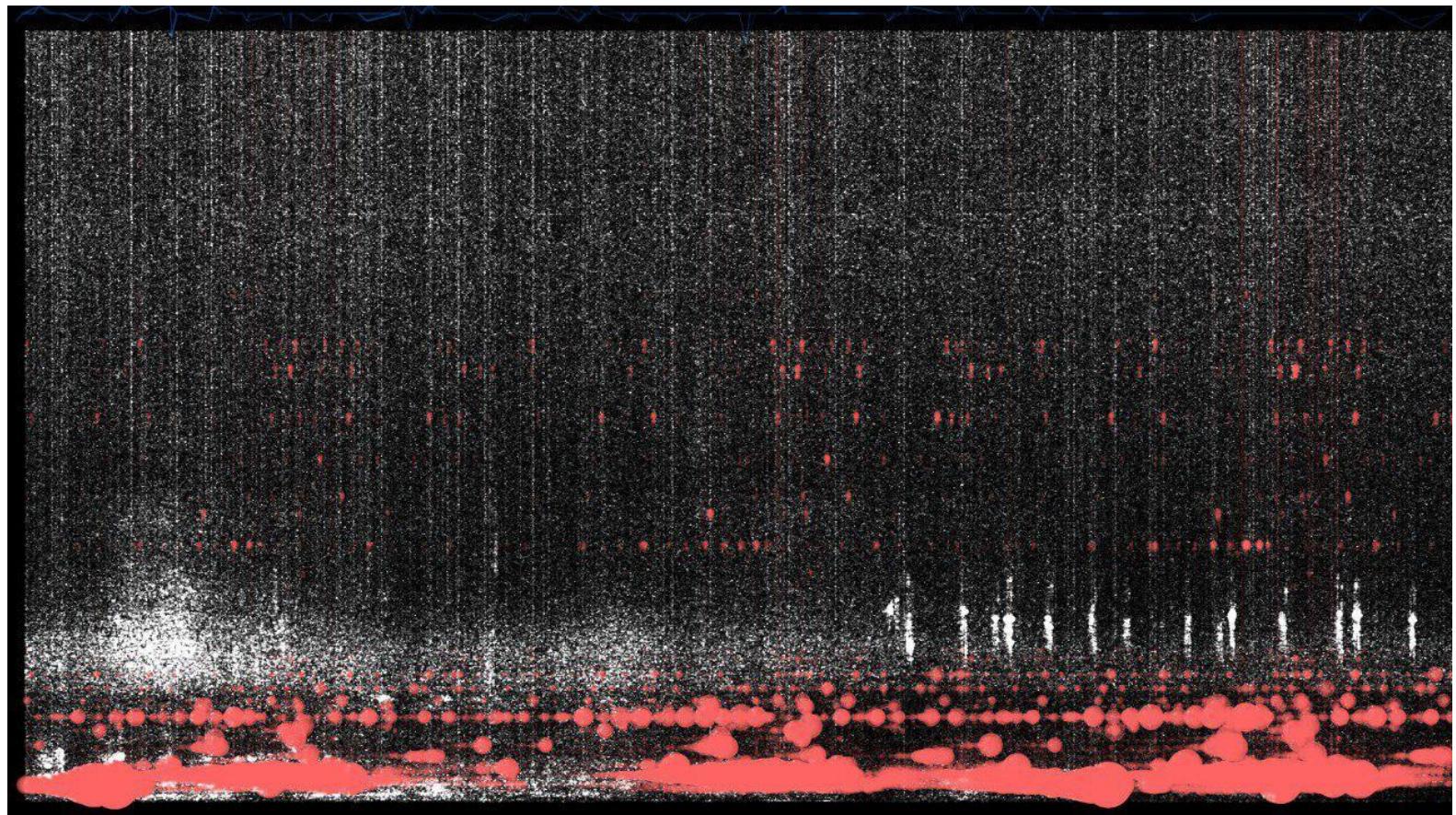
633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6길 13
064-755-2018 curator.yang@gmail.com
www.culturespaceyang.com

공연
웨더리포트(김지연, 이강일), 제주
맥스 바라이서 스미스, 샘 바라이서 스미스_런던

일시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장소 문화공간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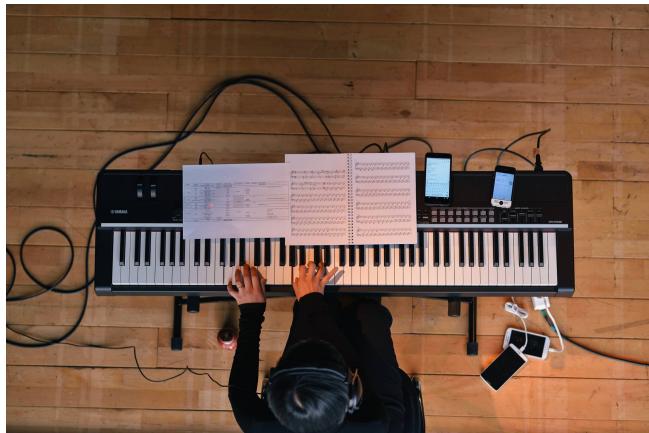
주최 문화공간 양, 웨더리포트, 사운드캠프





투명한 음악 Transparent Music (2017 -)

- 개요
 - 2016년 문래예술공장 MAP 음악분야 지원 받아 2017년 2월에 발표
 - 실내극장 공연
 - 기술매체, 몸, 소리 협업 공연 (이강일, 송명규, 김지연)
 - 공연 이후에 도큐먼트 영상, 리뷰북 발간, 음반 작업 진행
- 컨셉
 - 극장 안팎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공연장 내부로 가져와서 공연을 구성한다.
 - 관객은 각자의 스마트폰+헤드폰으로 청취
 - 즉흥 요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간의 차이 발생



도큐먼트 영상

- <https://vimeo.com/223319254>
- 공연 이후 도큐먼트 영상(연출 조용기)이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
- 2019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도큐먼트 영상 초청. '투명한음악' 쇼케이스 예정
- 음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다른 매체나 장을 통해 변주되고 다시 이야기되는 계기

피아노 데이 서울 PIANO DAY SEOUL

- 동기
: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음.
- 관심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11 with Bahng Hyewon | 11과 방혜원

PIANO DAY SEOUL

2018.03.29-8PM
studioLOG

Choi Minseok | 최민석

Lee Sangwook | 이상우

Lee Hanearl | 이한얼

PIANO

DAY

London

29/03/2019
11am GMT

San Mei Gallery
39a Loughborough Road
SW9 7TB
London

Sam Baraitser Smith
Grant Smith

29/03/2019
8pm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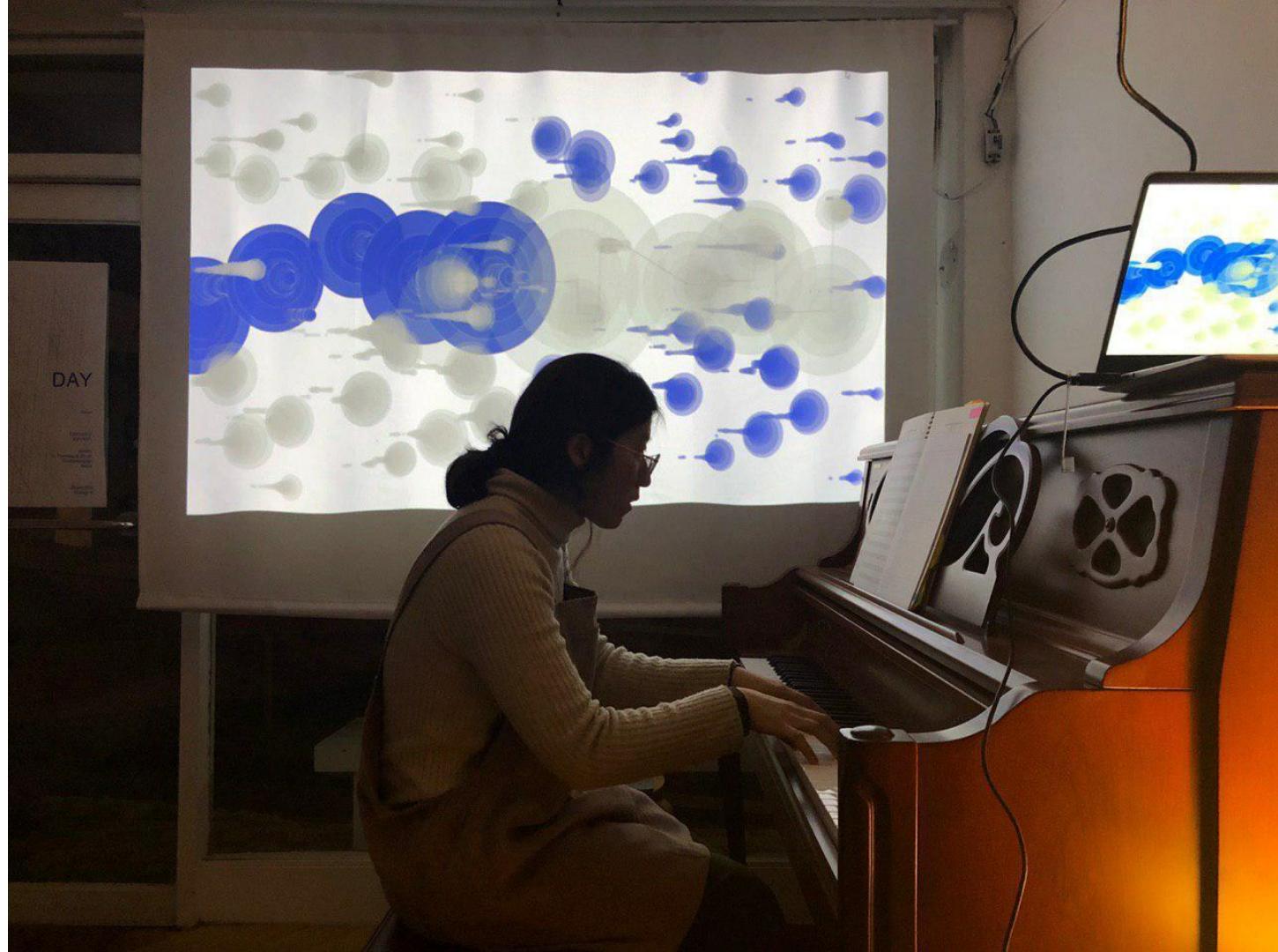
Jeokdo
13, Yeonseo-ro 35-gil
Eunpyeong-gu
Seoul

Jiyeon Kim
Gangil Yi

피아노 데이 서울 2019

- 독일의 닐스 프라함/**Erasedtapes** 레이블이 시작한 피아노 이벤트.
피아노를 애정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 워크숍 등을
조직하여 함께 즐기는 플랫폼.
- 올해는 영국 작가와 함께 기획. 라이브 스트리밍을 피아노 연주에
적용해서곡을 만들고 공연을 만듦. 1부는 영국 연주자와 **two piano**로
시차를 두고 합주. 2부는 스트리밍 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고려하여 곡을
만들거나 기존의 곡을 다시 치는 방식으로 공연.
- 피아노연주와 생성 그림이 있는 오디오비주얼 공연
- <https://vimeo.com/user98689565>





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Real time Network Echo' on five-line staff paper.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Real time'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Network Echo'. Both staves begin with a 'C' note. The top staff continues with notes E, G, B, G, B, A, D, F, A, C, E, C. The bottom staff continues with notes E, G, B, D, F, A, C, E, G, B, D, F. The notes are written in a cursive style with vertical stems extending upwards.

piano day play*

푸른 빙하가 들고 있다
전반을 누를 때마다 부서져 나가는 얼음 조각들
너는 저 너머의 소년을 바라본다
귀를 기울이면
가까스로 돌아오는 소리
우리는 느리고 부드러운 방에서
음의 부스러기를 따라 세워지는
검고 가는 산들을 본다
세모와 세모 사이를
잇는 정적
불시에 찾아온 손님의
몸짓
구르는 차 바퀴의
웅성거림

아름다운 빙하는 모두 녹아
동그란 물방울들이 되어버리고
구름을 바라보던 너는 에코를 기다리기로 한
다

에코

단단하고 긴 손이 내던진 그 투명한 구슬을

네가 귀를 기울이고
전반을 누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꿈결같이 부드러운 흰 파도를 맞게 된다
그 물결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의 숨소리를 따라 하게 된다

*11

- 음악의 프로젝트화
 - :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매체(책, 영상, 스트리밍 등)를 다원화하여 음악의 경계를 다시 사유해본다.
- 협업
 - :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작업을 함께 성장시켜가고 연례화하는 것.
 - : 다른 지역의 기획자, 예술가들과 공동 기획. 매년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지속하는 방식 찾기